

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- 배인호 초격차(超格差) 국어 제공

122nd

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006학년도 9월 평가원 15~21 풀이시간 :
풀이 전 이해도 : 수업 후 이해도 :

(가)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(積雪)을 헤쳐 내니
 창 밖에 심은 매화 ㉠ 두세 가지 피었어라
 가뜩 냉담한데 암향(暗香)은 무슨 일고
 황혼의 달이 좇아 ㉡ 베개 밑에 비치니
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
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
 임이 너를 보고 어땠다 여기실꼬
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
 나위(羅幃) 적막하고 수막(繡幕)이 비어 있다
 부용(芙蓉)을 걷어 놓고 공작(孔雀)을 돌려 두니
 ㉢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뎡고
 원앙금(鴛鴦錦) 베어 놓고 오색선(五色線) 풀어 내어
 ㉣ 금자로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
 수품(手品)은 물론이고 제도(制度)도 갖출시고
 산호수(珊瑚樹) 지게 위에 백옥함(白玉函)에 담아 두고
 ㉤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
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
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
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

- 정철, 「사미인곡」 -

(나) 집을 치면, 정화수(精華水)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
 생기는 ㉠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래. 또한 윤이 나
 는 마루의, 그 끝에 평상(平床)의, 갈앉은 트랙의, 물 냄새
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.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
 ㉡ 바람은 어려 올 따름, 그 옆에 순순(順順)한 스러지는 물
 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래.

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.
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, 흐느
 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. 진실로, 우리가 받
 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, 산과 언덕들의 만리(萬里)
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,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(水晶) 빛
 입자가 아니었을까나.

- 박재삼, 「수정가」 -

(다)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
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
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
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
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
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
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
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,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
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

┌ 너였다가
 [A] 너였다가, 너일 것이었다가
 └ 다시 문이 닫힌다

사랑하는 이여
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
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
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
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
 [B]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
 나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
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
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
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.
 - 황지우, 「너를 기다리는 동안」 -

15. (가)~(다)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? [1점]

- ① 이별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.
- ② 회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.
- ③ 현실을 초월하려는 종교적 신념이 드러나 있다.
- ④ 서글프면서도 강렬한 설득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.
- ⑤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.

16. <보기>는 (가)의 작가가 쓴 한시(漢詩)이다. ㉠~㉤ 중, <보기>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?

— <보 기> —

궁궐 담 남쪽 언덕에 나무는 푸르고 푸르리니
 돌아가는 꿈이 멀리멀리 옥당(玉堂)에 오른다
 두견새 슬피 울자 산에 대나무가 찢어지니
 고신(孤臣)의 머리털이 이때에 더욱 세어진다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17. (가)의 시상 전개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, (ㄱ)과 (ㄴ)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 [1점]

	기대감의 이유	현실의 확인	현실 극복을 위한 행위
봄	동풍	(가)	저 매화를 꺾어 임 계신 데 보내고자 함
여름	새 잎	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음	(ㄴ)

- | (가) | (ㄴ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① 녹음이 깔림 | 제도를 잘 갖추 |
| ② 암향이 일어남 | 백옥함에 담아 둠 |
| ③ 산과 구름이 험함 | 오색실을 풀어 냄 |
| ④ 적설을 헤쳐 냄 | 부용을 걷어 놓음 |
| ⑤ 가뚝 냉담함 | 임의 옷을 지어 냄 |

18. (나)에서 ㉠과 ㉡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파악으로 올바른 것은? [1점]

- | ㉠ | ㉡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생산과 풍요 | 죽음과 상실 |
| ② 순수한 사랑 | 죽음과 상실 |
| ③ 인생무상 | 재회에 대한 믿음 |
| ④ 생산과 풍요 | 윤회에 대한 확신 |
| ⑤ 순수한 사랑 | 재회에 대한 믿음 |

19. <보기>를 (나)로 바꿔 썼다고 할 때, 나타난 변화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<보 기>

갈까 부다, 갈까 부다, 임 따라서 갈까 부다. 천 리라도 따라가고 만 리라도 갈까 부다. 바람도 쉬어 넘고, 구름도 쉬어 넘는, 수지니, 날지니, 해동청, 보라매 다 쉬어 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임 따라 갈까 부다.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 동풍 제비 되어, 임 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노니다가, 밤중이면 입을 만나 만단 정회를 허고 지고, 뉘 년의 꼬임 듣고 영영 이별이 되려는가? 어쩔거나 어쩔거나. 아이고, 이를 어쩔거나.

- ① 감정 표현이 절제되었다.
- ② 해학적 특성이 두드러졌다.
- ③ 음악적 특성이 강화되었다.
- ④ 우화적 성격이 약화되었다.
- ⑤ 관용구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.

20. (나)와 (다)에 나타난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대화체를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.
- ② 반어적인 표현으로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.
- ③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.
- ④ 설화적 인물과 사건을 빌려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.
- 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통해 어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.

21. (다)에서, [B]에 비추어 [A]를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내면세계로 몰입하는 계기가 되는군.
- ② 낮은 세계를 동경하는 계기가 되는군.
- ③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군.
- ④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계기가 되는군.
- ⑤ 이상과 현실이 타협하는 계기가 되는군.